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에도 11일 비가 내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오전까지 최고 120mm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광주지방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집중 호우에 대비한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복절 이후 다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빛으로 버티는 중소기업들 정책자금 상환 쓰나미 우려

3高 현상 광주·전남 중기 한계상황  
자금 수요 몰려 최악 명절 될수도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하나로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당장 자금 수요가 몰리는 명절을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높은 어음부도율, 급증한 대출과 연체율 등 경제 통계로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칫 최악의 명절을 보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광주신용보증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기업들을 대신해 지급한 매출채권보험 보험금은 25억1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2억3400만원)보다 12.4%(2억76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건수도 48건으로 전년보다 20.0% 늘었다. 지급금액 증가율보다 건수 증가율이 높은 건 외상액이 그만큼 영세하다는 걸 뜻한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으로 제공한 후 부도 등의 이유로 거래처로부터 대금회수를 못 할 때 신보가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상거래 안전망의 중요성도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매출채권보험 가입도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8262억원으로, 지난해(6657억원)보다 24.1%(1605억원) 증가했다는 게 광주 신용보증센터 측 설명이다.

기업이 어음에 적힌 돈을 제때 받지 못할 때 생기는 어음부도율은 0.28%(6월 기준)로,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 7대 특·광역시 중 인천(0.41%) 다음으로 높았다.

'빛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출 잔액도 1년 새 8조원이나 불어났다.

올해 5월 기준 지역 예금취급기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광주 35조12억원·전남 28조3655억원 등 63억36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5조3226억원)보다 14.5%(8조441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 대출 잔액이 8.5%(3조2910억원 ↑) 증가하는 동안 비은행권은 28.2%(4조7531억원)나 늘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평균 연체율도 두 달 연속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은 광주

0.31%·전남 0.32%로, 전국 평균 0.29%를 넘었다.

특히 광주 중소기업 연체율은 관련 통계를 낸 지 난 2019년 12월부터 30개월 연속(올해 4월은 동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남 연체율도 올해 4월 들어 두 달 연속 전국 평균보다 높다.

증권 시장에 등락된 상장기업들도 소기업들과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지난해 광주 상장기업(코스피·코스닥·코넥스) 15개사의 부채비율은 131.8%로, 전국 평균(70.7%)을 훌쩍 넘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은 2017년 115.5%에서 2018년 106.1%, 2019년 101.1% 등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116.3%, 지난해 131.8% 등으로 오르고 있다.

금융 비용 부담을 반영하는 차입금 의존도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광주 상장사들의 평균 차입금 의존도는 29.5%로, 역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0.5%를 크게 웃돌고, 차입금 의존도가 가장 낮은 울산(14.3%)보다 2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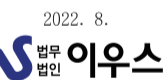
광주 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7년 29.0%, 2018년 25.0%, 2019년 24.2% 등으로 줄다가 2020년 25.7%, 2021년 29.5% 등으로 반등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 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론 코로나19 대출 지원조치를 종료하는 한편,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당장을 버티기 힘들다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형편이다.

한편 중소기업기업부는 이날 3조6000억원 규모 정책자금·보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추석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백희준 기자 bhj@

### 변호사 영입인사

저의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번에 서울중앙지법합청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임한 김경근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생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법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김승희, 서예민, 강성두  
고급 오세욱  
변호사 임찬숙, 이병주, 고영석, 김경호, 장은배, 김석운,  
김문석, 황종택, 박 벨, 원유리, 장예민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정든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이우스에서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재직하는 동안 쌓은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인천지검, 제주지검 검사
- 중국 칭화대학·정법대학 방문교수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표변호사 김경근 올림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광복절 이후 '물폭탄' 예보

내주 초 비구름대 몰려와  
16일 중부·17일 남부 영향  
광주·전남 취약지구 점검

광복절 연휴 이후 또 한번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까지 물폭탄을 쏟아낸 정체전선은 현재 남하하면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온 정체전선은 12일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면서 호남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120mm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4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진하면서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재차 올려보내 14~15일 중국 북부지역과 중국과 북한의 접경에 다시 정체전선을 만들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광복절을 전후해 새롭게 형성된 정체전선은 지난 8일 수도권에 쏟아졌던 집중호우 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비슷한 강도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는 16일께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또다시 영향을 주고 다음날인 17일에는 남부지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체전선은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처럼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집중 호우에 대비한 수해 취약지구 긴급 점검에 나섰다. 광주시는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재난 취약지역 38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재난 취약지역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침수 우려 지역, 지하차도, 대규모 공사현장, 산사태 취약지역, 배수펌프장, 급경사지, 둔치 주차장, 지하철 역사 등이다.

전남도는 11일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긴급 대처상황보고회'를 갖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등 침수우려 지역과 유동인구 밀집구역 내 맨홀, 산사태 우려지역, 취약 농업용 저수지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GGM 직원들 주거시설 확보 '청신호'

광주시, 전략주택 사업 공모 선정

전국 최초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직원들과 협약한 주거·보육·교육 비용 지원 등 '사회적 임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본보 2022년 6월 9일자 1면)과 관련해 일단 주거시설 확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300호 규모 일자리 연계형 지역 전략주택 건립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됐다. 일자리 연계형 전략주택은 광주 송정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640억원, 150억원을 투자해 1만㎡ 부지에 공공임대 형식으로 건립된다.

입주자 선정은 광주시장이 모두 할 수 있어 지역 전략산업, GGM 직원 주거 용도로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단지에 시비 150억원을 들여 체육시설, 도서관, 어린이집도 건립할 계획이어서 GGM 직원 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GM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주거 지원 등 이른바 사회적 임금을 제공받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전략주택 건립에 그치지 않고 GGM 직원을 위한 공동 복지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주거비도 대상과 금액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 장학금, 건강 검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76억원 규모 공동 근로복지기금도 조속히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복절 대체휴무 ... 15일자 신문 읽니다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